다큐멘터리 사진의 의미구조와 이중적 텍스트 구조에 관한 연구

- 스티브 맥커리Steve Mcccury의 작품을 중심으로-

함 현*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e-mail: popart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Documentary Photography : its focus on Steve Mcccury's works

Hyun Hham*
*Dept.of Broadcasting & Digital Media, Chungwoon.ac.kr

요 약

본 논문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의미구조와 특성을 스티브 맥커리(Steve Mcccury)의 작품을 통해서 사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구조와 텍스트의 이중적 구조의 전달 방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큐멘터리 사진이 갖고 있는 시각적 믿음의 생산에 따른 이미지의 진실성은 다양한 양식과 표현 기법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결국, 다큐멘터리 사진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단순한 기록매체로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1. 서론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마사 로슬러Martha Rosler의 말을 빌자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유로운 감수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양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즉, 다큐멘터리 사진의 의미와 구조적인 특성의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어떤 시각을 제시하고 주장을 펼쳐나가는 방식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다큐멘터리 사진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상징체계는 현장 또는 상황을 기록하고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의 이중적인 텍스트 구조를 생산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사진은 단순한 기록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진정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사진은 그것이 갖고 있는 친화성에 의한 그 의미구조와 특성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의 친화성은 꾸며지지 않은 사실성을 위해 솔직하게 말하는 성질과 꾸며지지 않은 사실성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연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2]. 그러므로 다큐멘터리 사진은 본질적으로 믿음과 관련된 가치적 양식을 제공하고 우리의 실제적 삶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 사진은 믿음이라는 진실과 연관되어 수용자와의 오랜 시간동안 유착되어진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다양한 삶의 양식을 제공하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구체화된 실상의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장르의 사진에 비해 존재적 위상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르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사회적 인정의 범위는 미학적 분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 반영의 진실성에 목적을 둔 공적인 이미지로서의 해석이 유용할 것이다. 즉 다큐멘터리 사진은 현실에 대한 해석의 대상인 것이다. 특별한 순간의 사실성을 묘사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특성은 인간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시도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 사진과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표현을 잘 묘사하고 있는 스티브 맥커리의 작품을 통해 다큐멘터리 사진이 갖고 있는 시각적 의미 전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스티브 맥커리의 전기적 요소

스티브 맥커리는 많은 지역의 국제적, 지역적 갈등을 보고하고, 이란, 이라크 전쟁,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분열, 베이루트,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걸프전이 모두 포함된다. 그의 작업은 세계의 주요 화보집들에 게재되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사진에서 그는 티베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인도, 이라크, 예멘, 불교, 앙코르와트 사원을 탐방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사진이 된 샤르만 굴리라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소녀를 찾아낸 사진으로 사진가로서 절정을 맞이했다 [3] . 현재 그는 세계적인 매그넘의 멤버이며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6 대구 사진비엔날레'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안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티브 맥커리는 '아프칸 소녀의 초상'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토 저널리스이며 이미지 메이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의 주제는 다큐멘터리와 보도사진의 저널리즘적 성격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투쟁, 슬픔, 죽음과 같은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작가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맥커리의 대표작인 1995년의 '아프칸 소녀의 초상'은 2002년에 나이든 소녀의 모습을 다시 담아내어 화재를 낳기도 했다. 또한 그의 사진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면서도 인물 사진에서 중요한 시선의 관점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작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진은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이 지배적인 느낌을 담아내고 있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3. 다큐멘터리 사진의 의미와 스티브 맥커리의 작품세계

다큐멘터리 사진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가 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진정한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 신뢰성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다큐멘터리 사진의 소재는 사회개혁적인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의 발견 또는 전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진가의 견해와 더불어 민감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기록되는 표현 매체로서 다큐멘터리 사진이 발전되었다 [4]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스티브 맥커리의 작품은 시각적 표현에 집착하거나 오리엔탈리즘을 추구하는 작가적 성향이 강한 듯 보인다. 그의 사진 무대로 활용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모습 또는 상황을 담아낸 특징은 한 국가가 겪고 있는 가난과 고된 삶의 모습을 포트레이 형식으로 담아내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양인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보다는 피사체를 미화시켜 바라보는 관점이 투여된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도판1> Porbandar, Gujarat, India, 1983

<도판1>의 작품은 스티브 맥커리의 몬순의 대표작중 하나로 상당히 유명한 작품중의 하나이다. 홍수가 들이 닥치자 집안에 중요한 재산중 하나로 보이는 허름한 재봉틀을 들고 물바다를 건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의 얼굴에서는 곤경에 처하고 험난한 삶에 익숙한 듯 여유롭고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3] .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은 한 개인 블로그에 실려 있는 일반인이 바라본 스티브 맥커리 작품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본질은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사진에서는 망원 렌즈를 활용하여 관망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망원렌즈의 사용은 현실적 거리는 멀지만 시선적 거리를 보다 가깝게 대상을 포착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작가의 선택되어진 인물과 배경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절제된 배경의 선택과 인물을 부각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진은 피사체를 미화시키고 관망하는 듯 하다. 또한 서양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선의 이중성에 대한 표현이지 삶의 진솔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화된 인물의 도상적 활용에 대한 생각이 배제되기는 어려운 관점을 갖고 있다. 결국 그의 사진은 가난과 빈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된 시각적 이미지의 전달방식 외에

는 또 다른 그 의 내포적 의미를 찾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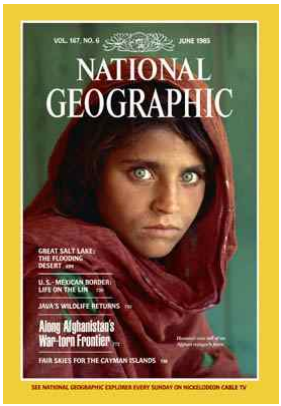
4. 다큐멘터리 사진의 이중성

다큐멘터리 사진은 우리 사회적 양심이며, 사회질서의 개혁적인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르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다큐멘터리 사진이 담아내고 있는 이미지는 사회전면에 등장 시키거나, 새로운 제도권에서 또 다른 제도를 재생산해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스티브 맥커리의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순수 기능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잡지에 전면 등장시켜 새로운 인식을 시켜나가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도판2> 파키스탄 여자, 1985

<도판2>의 사진은 스티브 맥커리가 1985년 파키스탄 소녀를 찍은 작품으로 그의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의 특성은 초록색 눈과 빨간 의상이 감상자로 하여금 쉽게 잊을 수 없는 느낌을 전달하는 인물사진이다. 스티브 맥커리의 인물사진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시선의 관점을 통한 감사자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아이들을 많이 촬영하였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련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시선의 순간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심으로 불리던 다큐멘터리 사진의 역할과 본질의 훼손에 대한 비판은 문제시 되고 있다. 즉 화려한 잡지, 책, 그리고 미술관이나 화랑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변질되는 점들이다. 스티브 맥커리의 사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 다큐멘터리 사진의 이중성과 본질이 훼손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도판3> 파키스탄 여자의 표지화보

<도판 3>의 사진은 스티브 맥커리가 촬영한 파키스탄 소녀의 모습이「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사진으로 선택된 이미지이다. 물론 이를 계기로 스티브 맥커리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스티브 맥커리의 자유주의적 다큐멘터리 사진의 특징은 아프카니스탄의 가난과 억압의 모습을 어린아이들의 촬영해서 제도권에 알리는 작업을 한 대표적인 작가로 보여진다.

다큐멘터리 사진이 지켜 나가야할 현실 반영적인 주체와 대상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기능과의 관계 혹은 보편적 관점에서의 의미생성 과정을 무시하고 변질되는 상황은 빈번하다. 스티브 맥커리의 작품이 진실에 대한 믿음을 생성하지만 제도권과의 타협의 장에 뛰어 들었다는 점은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과 관계되어 그 본질이 퇴색되어지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도판4> 파키스탄 소녀의 1985 Vs. 2002

<도판4>의 사진은 파키스탄 소녀의 1985년과 2002년의 이미지이다. 1985년에 촬영된 이 사진이「내셔널 지오그래픽」표지를 장식하고, 10년 후 이 소녀를 찾기 위한 세계적인 이벤트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이중적 사용의 비판적 견

해가 뒤따른다. 즉 스티브 맥커리가 추구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되고, 제도권의 상업주의적 시장 논리에 편승됨으로써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다큐멘터리 사진의 의미작용과 아우라가 상실시키 있다는 점이 상기된다. 또한 다큐멘터리 사진이 시장의 논리에 의한 가치의 추락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4. 나가며

다큐멘터리 사진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 또는 현실을 보는 것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 즉 푼크툼이 없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진은 기록을 매체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특수성으로 인한 카메라의 선택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임에 틀림없다. 또한 다큐멘터리 사진은 강렬하고 효과적인 진술을 만들어 주는 시각적인 정보의 축적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5〕.

우리 사회의 현실을 대상으로 현실에 가깝게 재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은 우리 사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작가의 눈에 비친 현실적인 모습을 파인더의 한정적인 틀 안에서 담아내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큐멘터리 사진은 제도화된 시선 안에서 제도화된 시선 안에서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키고, 사회 비판의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으로서의 저널리즘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Bolton Richard(1992), 「The Concept of Meaning: Critical Histories of Photography」, 김우룡 옮김(2002), 「의미의 경쟁: 20세시 사진비평사」, 눈빛, p.349.

〔2〕 김철권(1999), 「사진의 의미와 사진의 구조」, One & One, p.154-155.

〔3〕 Brigitte Lardinois(2007), 「MagunumMagunum」, Thames & Hudson Ltd, London, 정진국 역(2007), 「매그넘매그넘」, 까치, p.355

〔4〕 Rothstein Arthur, 임영균 옮김(1997), 「다큐멘터리 사진론」, 눈빛사진선서 p.33.

〔5〕 Rothstein Arthur, 위의책, p.23.